

고령사회, 더 깊어지는 노인의 소외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이들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선 많은 노인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하게 들립니다.

노인의 소외는 단순히 물리적 고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직장에서의 자리를 잃고,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대화를 나눌 이가 줄어들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인식은 정신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노인의 전통적 지위를 약화시켰습니다. 과거 대가족 제도 속에서는 노인이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돌봄의 수혜자'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소통 방식은 노인들의 접근을 가로막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앱 사용이나 온라인 절차가 노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장벽입니다.

문제는 소외가 단순한 개인의 외로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며,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노인의 소외는 복지 비용

증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일상 속에서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와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사회 참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젊은 세대와 노인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입니다.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길 위의 노인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시장에서의 따뜻한 대화, 가족 모임에 초대하는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노인의 소외는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소외를 방치한다면, 그 그림자는 곧 우리 자신에게도 드리울 것입니다.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국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8. 14.)